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흐름비율분석에서 수익성측면에서는 제조업평균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창출능력은 높은 편이지만 제조업평균에 비해 변동이 심하고 변동폭이 커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성측면에서 장기지급능력은 제조업평균보다 낮지만 단기지급능력 및 이자보상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과의 정보유사성 검증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한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 만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재무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어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은 서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의 정보유용성 검증에서 EVA지표와의 관계에서는 전통적 재무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재무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EV지표에 대해서는 전통적 재무비율과 현금흐름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분석결과 EVA 및 EV지표와의 관계에서 현금흐름비율이 전통적 재무비율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2)는 기각되어 현금흐름비율이 전통적 재무비율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평가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발생주의재무정보와 현금흐름정보가 제시하는 정보는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평가 시 발생주의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과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의 각 활동별 현금흐름을 포함한 현금흐름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KTX개통에 따른 복합운송시대의 한국물류산업 비전에 대한 실증연구

해운경영학과 이 영 풍
지도교수 문 성 혁

복합운송은 최근 글로벌 물류산업계의 주류적인 현상이다. 지난 1990년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 글로벌 시장이 국제화 되면서 시장의 통합 현상은 가속화 되었고 이른바 EU, N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은 심화되었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면서 전통적인 시장상품의 가격은 고정화(constant)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품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원가를 절감하는 대안마련이 각 글로벌 기업별로 한창이다.

복합물류산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즉 기업들이 상품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원가를 절감하려는 과정에서 상품원가의 대부분이 또한 물류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상품의 수송비와 저장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상품의 시장가격이 다소 고정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최종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따라 육상과 해상, 항공 등 육, 해, 공의 모든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도 복합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고속철도 KTX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복합운송 시대의 막을 열게 돼 앞으로 복합물류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KTX가 개통된 뒤 급변하게 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변화 양상과 국내 복합 물류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물류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해양수산부와 철도청, 두 번째 그룹은 부산광역시와 부산발전연구원, 세 번째 그룹은 한국해양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한진해운과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10개의 문항 가운데 8개는 연구팀의 예상응답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팀의 예상응답이 실제 응답자들의 반응과 일부 다르거나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문항들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 폭 넓은 답변이 도출되었으나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팀의 예상응답과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이 아주 깊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연안해양사고 대응방안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

해운경영학과 고 덕 진
지도교수 안 기 명

우리나라 연안 해운은 외항해운에 비하여 선복과잉, 선박의 노후화,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노후선 대체 및 안전설비와 우수 선원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선박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해운의 문제점은 잦은 해양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및 물적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화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해양사

dCollection